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분석¹⁾ : 1959년부터 1994년까지

A Content Analysis on the Treatises of KHERJ for the Academic Identification
of Home Economic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황덕순
조교수 한경미
강사 홍은실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Duck-Soon Hwang

Assistant Professor : Kyeong-Mi Han

Lecturer : Eun-Sil H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의 분석 |
| II. 관련 연구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Home Economics has been confronted with many disciplinary challenges in and/or out of it. We, as the home-economists, have to find out ourselves and re-identify Home Economic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atises reported on KHERJ through the contents classifica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fication of Home Economics.

Kore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made its first appearance in 1959 and has been published serial number 100 at the end of 1994. At this moment, it seems to be valuable to identify the state(tendency) of researches during that time. So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all articles(1165) printed i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from 1959 to 1994. In this study, articles were classified by subject matter(theme categories), relevant facts of researcher, research method, etc..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indicated by the publication state(situation) of Journal, status

1) 이 논문은 1994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nd plac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of head researcher, number of articles according to college and universities, distribution of subject matter, number of researcher, research fund, transition of subject matter, research method according to subject matter, and transition of statistic technique applied and research objects.

I. 서 론

국제가정학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me Economics)에 의하면 가정학은 현재와 미래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서 인적, 물적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데 관심을 둔 학문이다. Wadworth등(1976)은 가정학은 과거와 현재의 견지에서 미래에 중점을 두고 인간 전생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학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여 뒤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연구 영역의 특성과 여성의 참여라는 사실이 전통적 유교가치에서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부문이었던 점으로 인하여, 종합응용학문으로서의 실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서 많은 도전과 내적 갈등을 겪어 왔다. 최근 일부에서는 가정학의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개인과 가족의 발달을 통하여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는 가정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가정학은 어느 학문 분야보다 더욱 발전하여야 할 가치있는 학문분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가정학은 이제 내적 갈등과 침체를 탈피하여 현대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급변하는 미래생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정학의 학문적 기반을 굳건히 하고 미래 가정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정학이 학문으로서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통시대의 여성교육은 내훈, 여사서, 여범 등과 같은 여성교훈서를 중심으로 부덕교육과 경험의 전수를 통한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다가, 1887년에 이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정식학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교육은 재래의 생활방식을 합리화

하고 능률적인 가사처리 등 생활을 개선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광복이후에 까지 가정학은 개도적,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정학에서 최초의 학회는 대한가정학회로 1947년에 창립되어 학회활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6.25동란으로 일시 혼란기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1959년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정학회지를 창간하여 현 학회의 기반을 잡고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1960년대는 생활의 과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회에서도 의·식·주·가정관리·육아·가족관계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원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가정대학이 계속 설립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계를 갖춘 가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는 가정학의 전문성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여 각 영역의 연구업적이 세분화되고 심화되어 연구분야가 구체적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문성의 강조는 1980년대 후반들어 가정학 및 가정대학의 명칭을 바꾸려는 탈가정학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정학이 전문화되고 개명한다 하더라도 학문적 영역은 가정생활현상이며, 이것은 다면적인 복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 분야만으로는 가정학의 실천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脫가정학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내에서 신체론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학자 Toffler(1980)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세계는 20C를 기점으로 하여 고도의 진분화 추세에서 다시 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미래에는 가정이가장 핵심적인 사회조직이 되어 그 중요성이 재출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이름으로 가정대학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학회의 명칭도 가족과 소비자학회로 바꾸었지만, 아직 가정학의 명칭을 고수하는 곳이 많으며, 바꾼다 하더라도 가정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개명하지 않

기로 합의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가정학의 전공분야가 세분되었고, 1982년에 개발된 교육과정모형(김숙희 외, 1982)은 식품영양학, 의류학, 가정경영학, 아동 및 가족학, 주거환경학 및 가정교육학 분야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전공분야가 급속히 팽창되었는데 1980년 중반부터는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다시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가정학은 당분간 전문화와 통합화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갈등 속에서 가정학 연구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정학 연구방법의 경향을 보면 통계학의 발전으로 분석방법이 정교화되어가고 있으나, 조사법이나 실험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론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한국실정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절대 부족하며 실천 학문으로서 실천적 방향 제시가 부진하다. 홍두승(1984)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학의 학술논문은 양에 비해 질적으로 이론부재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학의 독자적인 이론과 철학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가 경험적 연구와 병행되어야만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가정학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문수재, 1986: 145)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은 많이 강조되고 있으나 단독연구가 대부분이다. 연구기간도 1-2년의 단기연구가 대부분이고 장기간에 걸쳐거나 세대간의 비교를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한편, 질적으로 우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배후에는 반드시 풍부한 연구비와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있어야(문수재, 1986: 146) 하는데,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그 중 약 6%만이 연구비를 수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복자, 1985). 과학중심의 연구비 지원정책으로 가정학은 지원에서 소외된 실정이며, 독자적인 학문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연구비 수혜에 장애가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가정학 연구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은 가정학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다.

대한가정학회가 창립된 후 48년이 지나 통권 100호의 학회지를 발간하게 된 이시점에서 가정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구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학은 실용학문으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므로 지난 35년간에 연구된 주제를 분석해보면 각 시대마다의 관심사와 발달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의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분석은 일부영역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며, 최근까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9년 창간호부터 1994년 12월 통권 100호에 이르기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내용분석하고자 한다. 근래 가정학 계열에서 여러 학회가 생겨 전문적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굳이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정립하기 위하여 대한가정학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정학의 영역이 워낙 방대하여 특정 전문학회지를 추가할 경우 일부영역에 편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가정학회지가 가정학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성있는 학회지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며 역사가 가장 장구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가정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위치를 굳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학이 과거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안목을 열고, 방향감각을 가지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선도하며 진작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에 따른 가정학의 연구대상, 주제, 연구방법, 목적 등을 고찰함으로써 가정학 연구의 독자성과 본연의 자세를 재확인하여,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의 변천사

학회가 창립된 지 48년이 경과되었고, 이제 통권 100호를 넘는 학회지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

가정학회는 1954년 레터식 학회월보를 발간하다가 1959년에 대한가정학회지를 창간하였으나, 매년 발간하지는 못하고 2~3년에 1회씩 발간하다가 1968년부터 매년 발간하게 되어,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총 6권이 1960년대에 발간되었다. 1970년부터 연 2회씩 1973년부터는 연 4회씩 계간지로 증간하였으며, 1994년에는 급증하는 연구수요에 맞추어 5회 발간하였고, 1995년부터 연6회 발간하게 되었다.

2. 관련연구

1959년에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가 나온 후, 각 전공별 학회지가 발간되었다. 한국영양학회지(1967), 한국생화학학회지(1968), 한국식품과학회지(1969), 복식학회지(1975), 한국의류학회지(1976), 아동학회지(1980), 한국가정관리학회지(1983), 한국조리과학회지(1985), 한국식문화학회지(1986), 한국가정교육학회지(1989), 한국주거학회지(1990) 등 그외에도 관련된 많은 학회지들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학회지의 성격이나 실린 논문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몇몇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의류학영역에서 정찬진 등(1991)이 복식학회지와 의류학회지, 가정학회지 3종으로 의류학연구의 현황을 조명한 바 있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학 전체적으로는 문수재와 이기열(1984)이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부터 1983년까지 발표된 논문 572편을 7분야로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가정학회에서는 1977년과 1984년, 1990년 세차례에 걸쳐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을 5분야로 나누어 가정학의 최신정보를 발간한 바 있고, 윤복자(1985)는 5종의 학회지(대한가정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아동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논문을 영역별 연구방법별로 분석하였다. 영역은 ① 의생활, ② 식생활, ③ 주생활과 가정관리, ④ 아동학과 가족관계, ⑤ 가정과교육으로 크게 나누었는데, 식생활분야가 49.3%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고, 의생활(25.6%), 아동학·가족관계(11.6%), 주생활, 가정관리(10.8%), 가정과교육(2.7%)순이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과 실험

연구 방법이 83.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영역별로 보면 식생활 분야는 실험법(69.8%)이 가장 많고, 의생활분야는 조사연구방법(35.5%)과 실험연구방법(35.9%)이 많았으며, 주생활·가정관리, 아동학·가족관계분야에서는 조사연구방법(60%이상)이 가장 많았다. 윤복자(1985)연구는 5개학회지를 분석에 포함하고 대신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를 세분하지 않았으며, 분석을 개괄적으로만 하였다.

Ⅲ.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학회지가 세분화되면서 대표성있는 학회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각 전공 분야별로 학회지가 있고 인접학문분야의 학회지와도 연계되었기 때문에, 특정학회지를 선택하는 것은 곧 그 영역을 강조하게 되며, 편포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계열의 전영역을 고루 포괄하고 대표성이 있으며 통권 100호 발간을 맞이한 대한가정학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단일 학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단순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분석의 유목과 그의 분석기준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화를 꾀하기로 하였으며, 창간호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인 통권 100호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우리나라 가정학 연구의 역사를 섭렵하였다는 점이 이 선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주제의 변천과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고, 논문의 연구방법과 성격, 연구자 인적사항 등의 경향을 분류한다. 이러한 분석은 가정학의 학문적 성체성을 확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본 논문의 목적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분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지 발간 및 게재 논문의 현황.
- ② 논문의 연구 주제는 어느 영역에 얼마나 분포

하며 시대적 추이는 어떠한가?

- ③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및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는가?
- ④ 연구대상은 인간발달의 측면에서 어느 집단인가?
- ⑤ 연구자의 지위와 소속, 참여 연구자수는 어떠한가?
- ⑥ 사용 언어, 참고문헌수, 연구비 수혜여부등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분석대상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으로 1959년 창간호부터 1994년 통권 100호까지에 실린 총 1167편의 논문이다. 각 연구논문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유목과 하위 주제 유목의 분류 : 논문의 주제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두 영역 이상의 주제를 다룬 논문은 보다 중심주제에 분류하기로 한다.

의·구성·의장·의복행동/피복재료/피복관리/복식사/기타

식·식품/영양/조리/관리/식품사/기타

주·주거디자인/주거행동/주거환경/관리/주거사/기타
아동·아동발달/아동문제/양육행동/위탁관리/놀이/기타

가족·가족가치/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가족문제/노인/기타

관리·관리이론·접근법/가사노동/시간과 여가/기기관리/환경·자원재활용/기타

경제·소비자 행동/소비자 문제/수입지출/가계재정관리/기타

교육·원론·전통관습·가치·의식/취업/가정과교육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실험법, 조사연구, 기타(관찰, 이론, 사례연구)로 분류한다.

(3) 통계기법 :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Chi-Square, F검증,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기타통계로 나누어 각 기법의 사용여부를

분류한다.

(4) 척도검증 : 척도의 신뢰도 검증여부

(5) 연구대상 : 연구대상자를 인간발달 측면에서 어느 시기인가로 분석한다.

(6) 대표연구자의 지위와 소속학교 : 직급과 소속학교의 지리적 위치.

(7) 연구자수 : 연구에 참여한 수.

(8) 사용언어 : 한국어와 외국어.

(9) 참고문헌수 : 참고문헌에 등재된 수.

(10) 연구비 수혜 : 수혜여부.

분석자료의 신뢰도는 조별 분류의 일치정도(차배근, 1983 : 328)로 측정하였다. 총 분석대상 1165편 중에서 표집간격을 10으로 하고 체계적표집방법으로 117편을 표집하여, 이것을 두 조의 연구자가 각각 위 분석항목으로 분류하여 상호일치정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일치도는 .94였다. 자료의 처리는 연구주제에 따라 유목별로 나누어 분석하며, 그밖에 사용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적용한다.

IV. 결과의 분석

1. 학회지 발간현황

1959년 창간호부터 발간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창간이후 1970년까지는 1961년과 1964, 1965, 1967년을 제외하고 1년에 1권씩 총 8권이 발간되었다. 8권까지 게재된 논문수는 총 109편이다. 1권씩 발행되던 학회지가 1971년과 1972년에는 1년에 2호씩 발간되어 총 4호에 29편의 논문이 있다. 1973년부터 1993년까지는 1년에 4호가 발간되어 총 83호에 937편의 논문이, 1994년은 총 5호로, 9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연간 수록된 평균 논문수를 보더라도 1959년~1970년은 9편, 1971년~1972년은 15편, 1973년~1994년은 47편에 이르러 양적인 팽창을 보여준다.

(표 1) 학회지 발간현황

년 도	발간호수	총호(권)수	논문수	비 고
1959~1970	1권	8	109	'61,64,65,67 미발간
1971~1972	1.2호	4	29	
1973~1993	1-4호	83	937	'74(12권)3.4호 합쳐
1994	1-5호	5	90	

2. 연구주제

(1) 주제유목별 분포

총 1165편 논문의 주제를 8개의 유목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의 분포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의생활은 332편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다음은 식생활로 285편(24.5%), 가족 123편(10.6%), 아동 113편(9.7%), 관리 96편(8.2%), 주생활 92편(7.9%), 가정경제 68편(5.8%) 순이고, 가정과교육 및 가정학원론, 기타는 56편(4.8%)으로 가장 적게 수록되었다.

각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순위를 보면 먼저 의생활은 구성과 의장이 112편으로 가장 많고, 피복재료(64편), 의복사(60편), 의복행동(56편), 피복관리(30편), 기타 순이다. 식생활에서는 식생활관리가 82편으로 가장 많고, 식품(72편), 조리(54편), 영양(50편), 기타 순이다. 가족영역은 하위영역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부부관계가 28편으로 가장 많고, 부모자녀관계(24편), 노인(21편), 가족가치, 의식(19편), 가족문제(18편), 기타(13편) 순이다. 아동영역은 아동발달과 관련한 주제가 50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양육행동(40편)이다. 아동문제, 놀이, 위탁관리등 나머지는 10편이하이다. 관리영역은 가사노동과 관련한 주제가 32편으로 가장 많고, 관리이론(23편), 시간과 여가(10편), 기타(13편), 기기관리(10편), 관리능력 순이다. 주생활은 주거행동이 37편으로 가장 많고, 주거디자인(28편), 주거환경(12편), 주거사와 주생활관리는 10편이하이다. 가정경제 영역은 소비자행동과 수입지출과 관련한 주제가 19편으로 많고, 가계재정관리(16편), 소비자문제(13편) 순이다. 가정과교육 및 가정학원론, 기타영역은 가정

과교육과 관련한 주제가 20편으로 가장 많고, 전공관습과 의식(15편), 가정학원론(13편), 취업(8편)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영역별로 논문 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의 첫째는 각 전공영역에 전문 학회지가 있는 경우 그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가정학의 전공영역의 세분화에서 비교적 최근에 분리된 분야는 아직 연구업적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셋째로 각 영역의 전공자들이 가정학회에 대해 갖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탈 가정학적인 분야는 가정학회지에 게재하기 보다 전공 분야의 학회지에 게재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2) 주제유목의 시대적 추이

논문주제의 유목이 시대별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보면 <표 3>과 같다. 1959년부터 1964년은 의생활과 식생활(각 30.2%)에 관련한 논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동, 주생활, 관리, 교육 및 원론과 관련한 논문 순으로 많다. 이 시기에 가족과 관련한 논문은 한편도 없고, 경제영역도 1편 뿐이다.

1965년부터 1969년에도 식생활관련 논문(41.5%)이 가장 많은데, 의생활관련 논문(17.1%)은 이전 시기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그 다음은 교육과 원론에 관련한 논문이 많고, 가족관련 논문도 4편이나 등장한다.

1970년부터 1974년에는 의생활과 관련한 논문이 35.4%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식생활관련 논문은 28%로 감소하였다. 1989년까지는 의생활과 관련한 논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식생활관련 논문이 많았으며, 나머지 영역은 순서에 있어서 약간씩 변화가 있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역시 의생활관련 논문이 20.2%(70편)로 가장 많으나, 이와 근소하게 가족분야가 19.9%(69편)로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식생활, 관리관련 논문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가정학회지 창간이후로 1980년대 후반까지 의생활과 식생활관련 논문이 합하여 약 60% 수준을 유지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34%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전체영역으로 그 분포가 고

〈표 2〉 연구주제 유목별 분포

주제유목	소계(%)	하위유목	논문수	주제유목	소계(%)	하위유목	논문수
의생활	332 (28.5)	구성, 의장	112	가 족	123 (10.6)	가족가치, 의식	19
		의복행동	56			부부관계	28
		피복재료	64			부모-자녀관계	24
		피복관리	30			가족문제	18
		의복사	60			노 인	21
		기 타	10			기 타	13
식생활	285 (24.5)	식 품	73	관 리	96 (8.2)	관리 이론	23
		영 양	50			가사노동	32
		조 리	54			시간과 여가	14
		식생활관리	82			기기관리	10
		기 타	26			관리능력	4
				기 타	13		
주생활	92 (7.9)	주거디자인	28	가정경제	68 (5.8)	소비자행동	19
		주거행동	37			소비자문제	13
		주거환경	12			수입, 지출	19
		주생활관리	4			가계재정관리	16
		주거사	6			기 타	1
		기 타	5				
아 동	113 (9.7)	아동발달	50	기 타	56 (4.8)	가정과교육	20
		아동문제	9			가정학원론	13
		양육행동	40			전통관습, 의식	15
		위탁관리	5			취업	8
		놀이(예술, 창작)	7	계	1165(100)		
		기 타	2				

〈표 3〉 시대별 주제유목의 분포

논문수(橫 %)

주제유목 년 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 동	가 족	관 리	경 제	교육원론	계 (100%)
'59~'64	16(30.2)	16(30.2)	5(9.4)	10(18.9)	0(0)	3(5.6)	1(1.9)	2(3.8)	53(4.6)
'65~'69	7(17.1)	17(41.5)	1(2.4)	2(4.9)	4(9.7)	3(7.3)	2(4.9)	5(12.2)	41(3.5)
'70~'74	29(35.4)	23(28.0)	3(3.7)	10(12.2)	2(2.4)	3(3.7)	5(6.1)	7(8.5)	82(7.0)
'75~'79	55(35.7)	41(26.6)	3(2.0)	24(15.6)	12(7.8)	9(5.8)	2(1.3)	8(5.2)	154(13.2)
'80~'84	77(32.1)	69(28.8)	15(6.2)	20(8.3)	16(6.7)	23(9.6)	11(4.6)	9(3.7)	240(20.6)
'85~'89	78(31.3)	72(28.9)	33(13.3)	15(6.0)	20(8.1)	11(4.4)	15(6.0)	5(2.0)	249(21.4)
'90~'94	70(20.2)	47(13.6)	32(19.3)	32(9.3)	69(19.9)	44(12.7)	32(9.3)	20(5.8)	346(29.7)

르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족, 관리, 경제영역과 관련한 논문이 크게 증가하고, 주생활관련 논문도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증가하였다.

3. 연구방법과 통계기법

(1) 연구방법

주제유목별로 연구방법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질문지조사법이 4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실험법(28.3%), 문헌고찰법(21.0%)이다.

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상관분석만 보았다. 96편 중에서 χ^2 검증을 실시한 연구는 16.7%(16편), T검증이나 F검증은 26%(25편), 상관분석 10.4%(10편), 회귀분석을 적용한 것은 2.1%(2편)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고급통계기법이 분석에 도입되고 분석에 사용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37편의 논문에서 χ^2 검증을 실시한 연구는 37.1%, T검증이나 F검증은 61.6%, 상관분석 39.7%, 회귀분석도 16.9%나 되었으며, 요인분석과 경로분석과 같은 기법도 각각 9.3%, 4.2% 적용되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χ^2 검증을 적용한 연구는

<표 4> 주제유목별 연구방법

주제유목 연구방법	논문수(縱 %)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동	가족	관리	경제	기타	계
문헌고찰	109(32.8)	18(6.3)	27(29.3)	28(24.8)	15(12.2)	14(14.6)	10(14.7)	23(41.1)	244(21.0)
실험	135(40.7)	177(62.1)	8(8.7)	2(1.8)	1(0.8)	6(6.2)	1(1.5)	0(0.0)	330(28.3)
질문지조사	88(26.5)	90(31.6)	56(60.9)	83(73.4)	104(84.6)	73(76.0)	54(79.4)	29(51.8)	577(49.5)
사례,이론,기타	0(0.0)	0(0.0)	1(1.1)	0(0.0)	3(3.1)	3(3.1)	3(4.4)	4(7.1)	14(1.2)

의생활영역의 연구방법은 세 유형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실험법이 40.7%로 약간 더 우세하고, 문헌고찰법, 질문지조사법 순으로 많았다. 식생활영역은 실험법이 62.1%로 가장 많고, 질문지조사법도 31.6%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는 질문지조사법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문헌고찰법이며, 실험법은 매우 미미하다.

(2) 통계기법

질문지조사법으로 연구를 실시한 경우 적용한 통계기법의 종류에 따른 시대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는 조사연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적용되었다.

1959년부터 1960년대는 조사연구가 16편 이루어졌는데, 모두 기술통계를 적용하였고, 그 중 χ^2 검증을 실시한 연구가 6.3%(1편), T검증이나 F검증 18.8%(3편), 상관분석을 적용한 것이 6.3%(1편)이다. 1970년대는 조사연구가 96편 이루어졌는데, 1편

감소하고, 회귀분석을 적용한 연구가 36.4%나 되고 그의 고급통계기법을 적용한 연구의 비율도 많이 증가하였다. 기타 통계기법으로 군집분석, 판별분석, 로짓분석, LISREL분석 등도 9.2%나 적용되었다.

(3) 척도검증 여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한 연구도 시대변화와 함께 크게 증가해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10% 수준에서만 척도검증을 하던 것이 1990년대 초반에는 55.3%나 되었다.

4.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시대별 추이를 분석한 것은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학생(8.7%), 중고생(7.6%), 국민학생, 세대간과 기타(비인적요소), 노인, 국민학생 순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적다.

〈표 5〉 질문지조사법의 적용통계기법

논문수(적용%)

년 도 통계법	'59~'69	'70~'79	'80~'89	'90~'94	계
기술통계	16(100.0)	95(99.0)	237(100.0)	228(100.0)	576(99.8)
χ ² 검증	1(6.3)	16(16.7)	88(37.1)	64(28.1)	169(29.3)
T, F-검증	3(18.8)	25(26.0)	146(61.6)	155(68.0)	329(57.0)
상관분석	1(6.3)	10(10.4)	94(39.7)	85(37.3)	190(32.9)
회귀분석	0(0.0)	2(2.1)	40(16.9)	83(36.4)	125(21.7)
요인분석	0(0.0)	0(0.0)	22(9.3)	34(14.9)	56(9.7)
경로분석	0(0.0)	0(0.0)	10(4.2)	26(11.4)	36(6.2)
기타통계	0(0.0)	0(0.0)	7(3.0)	21(9.2)	28(4.9)
척도검증	2(12.5)	10(10.4)	58(24.5)	126(55.3)	196(34.0)

〈표 6〉 질문지조사법의 연구대상

논문수(적용%)

년 도 연구대상	'59~'69	'70~'79	'80~'89	'90~'94	계
영유아	2(12.5)	6(6.3)	9(3.8)	5(2.2)	22(3.8)
국민학생	1(6.3)	5(5.2)	20(8.4)	7(3.1)	33(5.7)
중,고	0(0.0)	14(14.6)	21(8.9)	9(3.9)	44(7.6)
대학생	0(0.0)	9(9.4)	28(11.8)	13(5.7)	50(8.7)
성인	12(75.0)	51(53.1)	132(55.7)	159(69.7)	354(61.4)
노인	1(6.3)	1(1.0)	9(3.8)	13(5.7)	24(4.2)
세대간	0(0.0)	4(4.2)	10(4.2)	11(4.8)	25(4.3)
기 타	0(0.0)	6(6.3)	8(3.4)	11(4.8)	25(4.3)

시대별로 연구대상을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70년대와 80년대에 감소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와 세대간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5. 연구자

(1) 대표연구자 지위와 소속학교

대표연구자의 직위별 분포는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직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교수인 경우

가 204편(17.5%)으로 가장 많고, 조교수 186편(16%), 전임강사 173편(14.8%), 부교수 157편, 조교와 대학원생이 156편, 강사인 경우가 126편 순이고, 교사와 연구원인 경우가 가장 적다.

대표연구자의 대학소재지 분포를 보면 〈표 8〉과 같다.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이 716편(61.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경북과 경남지역으로 236편(20.3%), 전북과 전남, 제주지역이 84편(7.2%), 충북과 충남지역이 72편(6.2%)이며, 외국이 10편 순이다.

대학별 논문 게재현황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서울지역은 632편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그

〈표 7〉 대표연구자 직위

							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상사	조교 대학원생	기타 (교사·연구원)	미기재
204 (17.5)	157 (13.5)	186 (16.0)	173 (14.8)	126 (10.8)	156 (13.4)	46 (3.9)	117 (10.0)

〈표 8〉 대표연구자 대학소재지

						명(%)
서울·경기·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제주	경북·경남	외국	미기재	
716(61.5)	72(6.2)	84(7.2)	236(20.3)	10(0.9)	47(4.0)	

다음은 경북·경남지역으로 236편(20.3%), 전북·전남, 제주지역과 경기 강원지역은 84편(7.2%), 충북·충남지역 72편(6.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강원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61.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서울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 128편을 게재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서울대(105편), 이화여대(74편), 숙명여대(46편), 한양대(41편), 중앙대(35편), 동국대(33편), 성신여대(25편), 경희대(20편)순이다. 모두 29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경기·강원지역에서는 20개 대학이 84편(7.2%)을 게재하였는데, 인하대학교가 22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심여대(13편), 인천대(8편)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충남지역은 15개 대학에서 72(6.2%)편을 게재하였는데, 대전실업전문대가 28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충남대(8편), 배재대와 숭전대(각7편) 순이다. 전북·전남·제주지역에서는 12개 대학에서 모두 84(7.2)편을 게재하였다. 그중 전남대학교가 23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주대(14편), 전북대(12편), 원광대와 목포대(각8편) 순이다. 경북·경남지역에서는 39개 대학에서 모두 236 (20.3%)편을 게재하였다. 그 중 경북대학교가 27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영남대(25편), 경상대(20편), 계명대(19편), 동아대와 부산대(18편), 효성여대(14편)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대학일수록 연구실적이 많고, 유명대학일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 연구자수

본문의 각 영역별로 연구자수와 연구비 수혜여부를 본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었다. 먼저 연구자수를 보면 단독연구인 경우가 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명(33.9%), 3명(7.3%)순이며, 4명과 5명이상인 경우는 각각 2.1%, 2.7% 밖에 되지 않는다. 영역별로 보면 주생활영역에서만 2명연구가 단독연구보다 많고, 모든 영역에서 단독연구가 더 많다. 의생활분야는 단독연구가 약 70%나 되고 3명이상의 연구는 7.2% 밖에 되지 않는다. 식생활분야는 단독연구와 2명연구가 비슷한 수준이고, 3명이상 연구는 20.4%로 다른 영역보다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주생활분야는 2명연구가 가장 많고(43.5%), 그 다음이 단독연구(34.7%)로 식생활분야와 같이 고른 분포를 보인다. 아동분야는 단독연구가 66.4%로 많고, 4명이상 연구는 1편도 없다. 가족분야도 단독연구가 51.2%로 많고 2인연구는 40.6%이며, 관리와 경제분야는 단독연구와 2인연구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식생활과 주생활, 관리, 경제, 교육·원론분야는 의생활, 아동, 가족분야보다 좀 더 공동연구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기타 : 사용언어, 참고문헌수, 연구비 수혜여부

주제유목별 사용언어와 참고문헌수, 연구비 수혜여부를 분석한 것이 〈표 11〉에 제시되었다. 논문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외국어인 경우가 2.9%이며, 각

〈표 9〉 대학별 논문 게재현황

		빈도(%)					
서울 629 (54.0)	건국대	18(1.5)	상명여대	12(1.0)	이화여대	74(6.4)	
	경희대	20(1.7)	서울교대	5(0.4)	중앙대	35(3.0)	
	경희여전	2(0.2)	서울대	105(9.0)	총회신학대	1(0.1)	
	고려대	17(1.5)	서울여대	9(0.8)	한국사회사업전문	1(0.1)	
	국민대	5(0.4)	세종대	7(0.6)	한국방송통신대	3(0.3)	
	단국대	2(0.2)	성균관대	2(0.2)	한국체육대	1(0.1)	
	덕성여대	8(0.7)	성신여대	25(2.1)	한성대	1(0.1)	
	동국대	33(2.8)	숙명여대	46(3.9)	한양대	41(3.5)	
	동덕여대	8(0.7)	숭의여전	7(0.6)	한양여전	6(0.5)	
	배화여전	7(0.6)	연세대	128(11.0)			
경기 강원 84 (7.2)	경기대	1(0.1)	수원대학	3(0.3)	철도간호전문	1(0.1)	
	경원대	3(0.3)	오산전문	2(0.2)	강원대	7(0.6)	
	경원전문	1(0.1)	유한공전	1(0.1)	관동대	5(0.4)	
	동남보건전문	1(0.1)	인천교육대	1(0.1)	상지대	1(0.1)	
	명지대	7(0.6)	인천대	8(0.7)	속초전문대	2(0.2)	
	서울보건전문	1(0.1)	인하대	22(1.9)	춘천교육대	2(0.2)	
성심여대	13(1.1)	장안실업전문	2(0.2)				
충북 충남 75(6.4)	청주교육대	1(0.1)	공주교육대	1(0.1)	배재대	6(0.5)	
	청주여사대	2(0.2)	공주대	5(0.4)	승전대	6(0.5)	
	충북대학교	5(0.4)	대전대	2(0.2)	충경공전	1(0.1)	
	충청전문대	1(0.1)	대전보건전문	1(0.1)	충남대	8(0.7)	
	한국교원대	3(0.3)	대전실업전문	28(2.4)	한남대	5(0.4)	
전북 전남 84 (7.2)	우석대	6(0.5)	전주대	1(0.1)	조선대	3(0.3)	
	원광대	8(0.7)	광주대	3(0.3)	호남대	14(1.2)	
	전북대	12(1.0)	동신대	1(0.1)	제주대	2(0.2)	
	전주기전여전	3(0.3)	북포대	8(0.7)			
경북 경남 236 (20.3)	경북대	27(2.3)	영남전문	5(0.4)	진주농과대	3(0.3)	
	경주전문	1(0.1)	영남공전	1(0.1)	창원대	2(0.2)	
	세명대	19(1.6)	영남대	25(2.1)	창원전문	6(0.5)	
	계명병설전문	3(0.3)	영남산업초대	1(0.1)	경성대	4(0.3)	
	계명실업전문	11(0.9)	효성여대	14(1.2)	고신대	1(0.1)	
	대구교육대	1(0.1)	경남대	8(0.7)	동아대	18(1.5)	
	대구대	9(0.8)	경남산업전문	1(0.1)	동주여전	1(0.1)	
	대구여자초급	2(0.2)	경상대	20(1.7)	동의대	4(0.3)	
	상지전문	1(0.1)	마산대	2(0.2)	부산대	18(1.5)	
	선린여전	1(0.1)	밀양전문대	1(0.1)	부산산업대	2(0.2)	
	신일전문	1(0.1)	울산대	6(0.5)	부산여대	5(0.4)	
	안동교육대	1(0.1)	울산전문대	1(0.1)	부산여자전문	1(0.1)	
	안동대	3(0.3)	진주교육대	2(0.2)	인제대	4(0.3)	
외국 10(0.8)	일본	5(0.4)					
	미국	5(0.4)					
기타	미기재	47(4.0)					

〈표 10〉 주제유목별 연구자수

논문수(縱%)

주 제 연구자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 동	가 족	관 리	경 제	교육원론	계
1명	232(69.9)	117(41.0)	32(34.7)	75(66.4)	63(51.2)	46(47.9)	32(47.1)	32(57.1)	629(100)
2명	76(22.9)	110(38.6)	40(43.5)	33(29.2)	50(40.6)	40(41.7)	30(44.1)	16(28.6)	395(100)
3명	22(6.6)	36(12.6)	7(7.6)	5(4.4)	4(3.3)	6(6.3)	3(4.4)	2(3.6)	85(100)
4명	1(0.3)	13(4.6)	3(3.3)	0(0.0)	2(1.6)	3(3.1)	2(2.9)	1(1.8)	25(100)
5명 ~	1(0.3)	9(3.2)	10(10.9)	0(0.0)	4(3.3)	1(1.0)	1(1.5)	5(8.9)	31(100)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교육과 원론분야가 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제, 가족, 아동, 관리 순이다.

도로 이루어졌다. 1959년 창간호부터 1994년 12월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1165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의 인적사항과 연구방법, 논문

〈표 11〉 주제유목별 연구비, 사용언어, 참고문헌 수

논문수(縱%)

주제유목 요 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 동	가 족	관 리	경 제	교육원론	계	
연구비	수혜	24(7.2)	23(8.1)	27(29.3)	12(10.6)	22(17.9)	16(16.7)	5(7.3)	10(17.9)	139(100)
	비수혜	308(92.8)	262(91.9)	65(70.6)	101(89.3)	101(82.1)	80(83.3)	63(92.6)	46(82.1)	1026(100)
사용 언어	한글	326(98.2)	277(97.2)	91(98.9)	109(96.5)	118(95.9)	93(96.9)	65(95.6)	52(92.9)	1131(100)
	외국어	6(1.8)	8(2.8)	1(1.1)	4(3.5)	5(4.1)	3(3.1)	3(4.4)	4(7.1)	34(100)
평균참고 문헌수(편)	21.2	21.8	24.3	25.6	34.3	30.8	29.3	24.2		

각 영역별 평균 참고문헌수를 보면 가족분야가 34.8편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관리(30.8편), 경제(29.3편), 아동(25.6편)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수혜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11.9%(139편)밖에 되지 않는다. 의생활분야는 7.2%, 식생활 8.1%, 주생활 29.3%, 아동 10.6%, 가족 17.9%, 관리 16.7%, 경제 7.3%, 교육과 원론분야는 17.9%의 연구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가정학회가 창립된 후 통권 100호 학회지를 발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역사를 정리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한 시

의 주제 별로 내용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발간현황을 보면 창간이후로 1970년까지는 4년을 제외하고 년간 1권씩 발행되다가, 1971년과 1972년은 2호씩, 1973년부터 4호씩 발간되었고, 1994년에는 5호가 발간되었다. 논문수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팽창을 가져왔다.

2) 연구주제 유목별 분포를 보면 총 1165편의 논문주제를 8개유목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의생활영역이 28.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식생활, 가족, 아동, 관리영역 순으로 많았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의생활은 구성과 의장분야가 가장 많고, 식생활에서는 식생활관리 분야가 가장 많았다. 가족영역에서는 부부관계분야, 아동영역은 아동발달분야, 관리영역은 가사노동분야, 경제영역은 소비자행동과 수입·지출분

야, 가정과교육과 가정학원론 및 기타영역에서는 가정과교육 분야와 관련한 논문이 많았다.

3) 논문주제 유목의 전반적 추이는 의생활과 식생활에 관련한 논문이 창간이후 60% 수준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34%로 크게 감소하고, 전체 영역으로 분포가 확산되었다. 특히 가족과 관리, 경제영역의 논문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가정학내에서 인적, 관리적 측면이 중시되고 시대적으로도 보다 관심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연구방법에서는 전체적으로 질문지조사법이 가장 많이 실험법, 문헌고찰법 순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영역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실험법이 좀더 우세하고, 식생활영역은 실험법이 훨씬 많으며, 나머지 영역은 질문지조사법이 가장 많았다.

5) 질문지 조사법의 경우 적용한 통계기법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80년대에 고급통계기법이 많이 적용되기 시작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통계기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척도검증도 과반수를 넘게 실시하였다.

6) 책임연구자 분포를 보면 직위에서는 교수가 가장 많고 조교수, 전임강사, 부교수 순으로 많았다. 대학소재지는 서울(54%)과 경기·강원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경북·경남, 전북과 전남·제주지역, 충북·충남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학현황을 보면 서울에서는 연세대학교가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고,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강원지역에서는 인하대학교가 가장 많고, 충북과 충남지역은 대전실업전문대가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전북과 전남·제주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가, 경북·경남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가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연구자수는 주생활영역을 제외하고는 단독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의생활, 아동, 가족영역은 단독연구 경향이 더 많고, 나머지 분야는 이들 보다 공동연구경향이 좀더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가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생각할 때 공동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8) 연구본문에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는 2.9%이다.

9) 평균 참고문헌수는 가족분야가 가장 많았다.

10) 연구비수혜 현황은 11.9% 밖에 되지 않는다. 영역별로 보면 주생활, 교육과 원론, 가족, 관리영역이 다른분야보다 연구비지원이 많은 편이었다. 이 수치는 1984년 이전에 행해진 연구의 6%에 비하면(윤복자 1985) 많이 증가한 것이지만 타학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부터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몇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정학 연구의 발달에서 조사방법론과 통계학의 기여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방법론과 통계학의 도입으로 가정학은 과학적 연구의 틀을 갖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경험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기를 지나는 동안 통계기법 활용에서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이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 아닌가 자성해 봐야 할 것이다. 고급통계기법을 적용하고 조사연구나 실험법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연구보다는 그 연구 결과로 부터 가정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경험적 연구도 바람직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정학의 철학과 이념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학문의 전문성 추구의 문제이다. 각 영역마다 지나친 전문화로 인해 가정학을 통합하려는 시각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지엽적인 연구위주로 변화하면서 타 학문으로의 접목을 시도하고 이로 인해 가정학은 무목적적 학문성과 정체감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더우기 가정학의 명칭을 개칭하자는 움직임에서 “탈가정학”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연구대상이 가정생활이라고하는 초점을 벗어나므로써, 가정학의 독자성이 약화되고 있다. 전문성의 강조는 연구 방법에서의 문제이지 그 결과가 가정생활 현상에 연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비 수혜의 문제이다. 연구의 질적 수준은 연구환경에 의존한다. 가정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연구를 하고 학문의 존립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조달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그러나 자연과학 위주의 학문적 풍토에서 가정학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역사에 비해 학문적 발전이 더디었다. 따라서 가정학자는 정부와 기업에 가정학의 의의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통하여 가정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산학협력체제와 공동연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경로를 통해 연구비를 적극 지원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자면 우선 현행의 교육부 학문분류체제에서 소외된 가정학을 대분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지방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교류를 넓힐 수 있도록, 학회나 발표회를 지방에 적극 유치하며, 지방대학의 학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학회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은 가정학이 飛上하거나 아니면 학문적 존폐위기에 몰릴 분기점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학이 태동된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연구경향과 관심사를 파악해 본 이 연구는 가정학의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한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숙희 외 (1982). "가정학 계열학과의 모형 교육과정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2) 1-35.
- 2) 모수미, 이기영, 김외숙, 최정화 (1992). 가정학원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3) 문수재 (1986). "미래의 가정학연구의 가능성" 대한가정학회 24(2), 춘계학술대회 기초강연
- 4) 문수재, 이기열 (1984). "한국 가정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 5) 윤복자 (1985). "2000년대 한국가정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 대한가정학회 제3차 국제가정학회 아세아지역회의 및 한일가정학회대회 초록
- 6) 이은해, 강혜원 (1983). "가정학 교과과정의 내용선정 및 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21(3)
- 7) 이인희, 윤서석, 장정옥 (1988). 가정학원론. 서울 : 수학사.
- 8) 정찬진 · 박신정 · 황선진 (1991).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 9) 차배근 (1983).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 세영사.
- 10)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 (1994). "동아. 조선일보의 가정생활관련 지면에 실린 기사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 189-199.
- 11) 홍두승 (1984). "가정학 연구의 방법론적 과제" 대한가정학회지 22(4), 193-194.
- 12) Carver, M.N.(1979) "Home Economics as an Academic discipline : A Short History." University of Arizona : Center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이은해 · 강혜원(1983)에서 재인용.
- 13) Lake Placid Conference on Home Economics. Proceedings of Conferences to 10, 1899-1908. Washington, D.C. : Home Economics Association.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Conference, pp. 70-71, 1902 (이기열, 대한가정학회지 제 42차 추계학술대회 초록, 1989 : 202에서 재인용).
- 14) Toffler, A.(1980)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Co.,
- 15) Wadworth, K.A., and Keast, A.C. (1976). Home Economics as Student Define It. Journal of Home Economics., 68, 1976 : 31-33.